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연구*

조지혜(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I. 서론

1. 연구의 문제의식

인격적 관계성이 결여되고 있는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한 나의 고민은 지난 7년간 신앙과 우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세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다.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었던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르는 ‘어머니’이자 교회의 ‘교사’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아픔을 지닌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향한 시대적 요청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한 배에 타고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은 ‘신앙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나는 지역 교회에서 만난 세 명의 기혼여성들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내면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들은 타인을 향해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 여성들과 나는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인격적 관계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는 참된 인간다움의 지향을 고민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숙고해 볼 가치가 있는 대화 체험이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격성이 살아있는 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은 상처 입은 존재의 치유와 회복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참된 인간됨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향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기독교 신앙과도 맞닿아있었다.

나는 신앙을 함께 나누면서 논문의 참여자가 된 세 여성들과의 대화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탐구를 수행하였다. 대화를 통해 실현되는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인 만남이 어떻게 내면의 질적인 변화와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나는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인격적인 대화의 형식을 ‘치유적 대화’로 잠정적으로 개념화하면서,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성을 토대로 내면을 향한 심층적인 대화가 이뤄지는 과정과 성격,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의

* 본 논문은 필자의 2019년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출처: 조지혜 (2019).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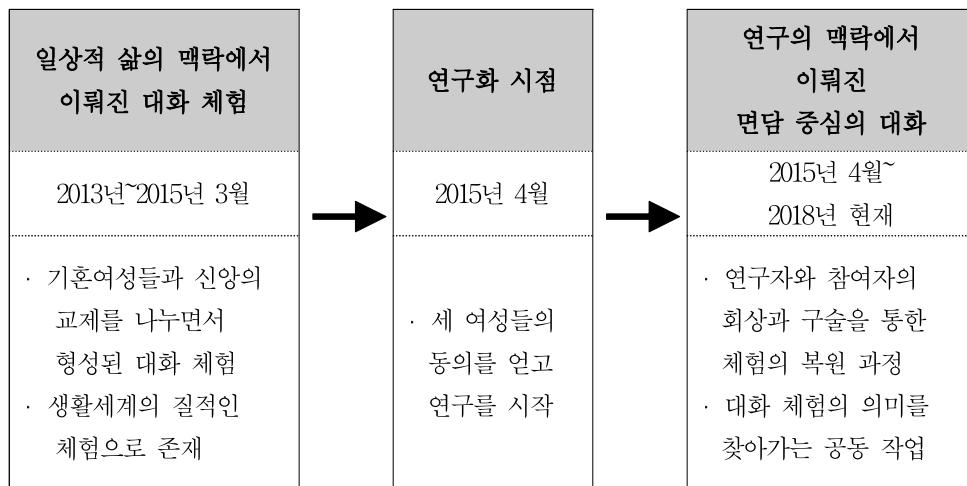
1) 논문에서 나는 ‘필자’나 ‘연구자’라는 표현 대신 ‘나’라고 표기함으로써, 연구자 또한 고유한 생애의 맥락에서 형성된 주관적 존재자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고유한 생애의 맥락 안에서 그들과 나는 대화를 기술하고, 이후 현상학의 개념을 활용하여 치유적 대화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방법과 절차

본 논문의 참여자가 된 세 여성들과의 만남은 한 지역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2013년부터 나는 20대~40대 기혼여성들이 모인 교회의 소그룹과 전도회에 참여하면서, 몇 명의 기혼여성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신앙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들과 나는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내밀한 마음의 상처를 나눌 수 있었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유년시절부터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근원적인 상처를 발견하고 마주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상담의 경우처럼 내면의 대화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일상적 맥락에서 비의도적으로 일어난 이러한 대화 체험을 어떻게 의미화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참여자들과 나의 만남은 상담이나 연구의 맥락이 아닌, 일상적인 삶의 맥락, 신앙의 맥락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연구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현장을 탐구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삶 속에서의 만남과 체험을 바탕으로 연구자적 관심과 물음이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나는 생활세계에서 나누었던 우리의 대화를 ‘회상’과 ‘구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복원’하면서 연구를 위한 자료를 추후에 만들어갔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역사학자들의 작업과도 유사한 연구의 과정이었다. 본 연구가 진행된 맥락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가 진행된 맥락

본 연구는 과거의 대화 체험을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복원하는 작업과 참여자들의 생애에 대한 내러티브가 자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15년 4월, 나는 연구화 단계에서 먼저 참여자들의 1차 동의를 받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나는 ‘회상일지’라는 형식을 통해 2013년 봄부터 2015년 봄까지 지난 2년간 세 여성들과 나누었던 대화 체험을 일차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참여자들과 나는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수첩에 있는 간단한 메모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화들을 날짜와 시간, 장소, 분위기, 느낌, 대화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의 회상일지’의 형식으로 복원하였다.

나는 각 참여자들과 나의 만남을 담은 인물별 회상일지로 재구성한 후,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검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일대일 개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회상일지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지난 대화 체험과 그녀들의 전체 생애에 대한 구술을 해주었다. 나는 참여자 중심의 ‘비구조화된 면담’을 수행하여 참여자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되도록 생생하게 담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구술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과거의 대화 체험을 의미 있게 조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면담이 단순히 연구 자료의 수집을 위한 방법적 도구를 넘어, 삶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구성과 해석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나는 연구자의 회상일지와 참여자별 면담 자료를 토대로,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체험을 그들의 고유한 생애의 맥락 안에서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참여자별 대화 체험에 대한 기술은 100페이지가 넘는 심층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본 발표 논문에서는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언급한 뒤,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에 대한 현상학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참여자들과 함께 과거의 대화 체험을 복원하고, 그들의 생애에 대한 구술 속에서 대화 체험의 위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공동 연구’의 과정이었다. 나는 이러한 공동 작업을 통해 체험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공감적 교류와 연구의 윤리성을 담고자 하였다.

II.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

1.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참여자들은 40대 초·중반의 기혼여성들로서 2명에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30대인 나는 나이의 차이를 넘어 신앙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면서, 그녀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2013년부터 나는 참여자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내면의 치유와 더불어 인격적 관계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었다. 우리는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신과 타인의 연약함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참여자 ‘다니엘’(가명)은 2013년 당시 허리와 목의 디스크로 휴직 중이었다. 나는 성경 지식에 대한 지적인 갈망이 컸던 다니엘과 함께 정기적인 기도와 교제시간을 가지면서, 그녀의 신앙이 ‘인식의 문제’에서 ‘존재적 차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도울 수 있었다. 다섯 살 어린 나이에 사우디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폐병으로 여의고 외로움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다니엘의 아픔은 그녀의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강박적인 모습이 그녀의 꿈에 나타났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아버지의 존재와 관련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고자 하는 ‘강박’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진 고아와 같은 ‘외로움’의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던 ‘외로움’이라는 상처의 근원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관계성과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인 ‘마리아’(가명)는 지역 교회에서 오랜 기간 정착하고 있던 여성으로, 재혼과 동시에 시부모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 우리가 만났을 당시 마리아는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건강의 악화, 과중한 교회 사역의 짐 속에서 몸과 마음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는 마리아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 과정에서, 감출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과거에 대한 고백을 듣게 되었다. 술과 도박과 마약에 빠져있던 전남편에게서 도망치면서 아들을 두고 올 수 밖에 없었던 마리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암에 걸린 아들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그녀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마음 속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사회적 가면’을 쓰며 자신의 존재를 감춰야 했던 마리아는 편견 없는 시선 속에서 진심을 나누는 우정의 관계를 나눔으로 자신의 얼룩진 삶을 열어 보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적 대화를 통해 마리아는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 참여자인 ‘안나’(가명)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물질적인 부담감, 비가 새는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들, 이전 교회의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복합되어 안나는 신앙의 깊은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런 안나가 깊은 상처의 근원을 마주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아픔을 나누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 속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안나와 동생을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방치되어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던 안나의 유년시절은 버려짐과 가난이라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로부터 거부된 상처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안나의 마음에는 한(恨)의 정서가 형성되었다. 안나는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타인에게 쏟아내고 고백하면서, 고통스러웠던 지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의 그림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내면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가며,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타인에게 열어 보이는 용기 있는 소통의 과정이었다. 타인과 함께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고 그 고통을 나뉘지는 대화는 오랜 시간의 만남을 필요로 했다. 참여자들과 나의 대화는 오랜 시간을 거쳐 내면을 향해 가면서 상처의 근원이 있는 존재의 심층에 다다랐다. 존재의 심층에 자리 잡은 상처의 근원에 마주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의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발생적인 연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막연하고 익명적으로 남아있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의식으로 보다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대화로 나누었을 때, 상처 난 마음에 지배받던 존재는 상처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치유는 참여자들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관계의 회복 안에서 이뤄졌으며, 나는 이러한 대화 관계의 회복을 돕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2. 상처의 근원에 대한 이해

참여자들이 유년시절부터 겪었던 체험들은 어떠한 의미구조를 갖고 상처의 근원으로 형성되었는가? 참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녀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심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불안이나 강박, 신체적 아픔, 관계의 갈등이나 신앙의 침체

와 같이, 참여자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내면의 근원적인 상처와 겹쳐지면서 표출된 현상이기도 했다.

(1)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

참여자들이 체험한 일상성의 깨어짐은 친밀했던 관계의 깨어짐과 상실이라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 일어났다. ‘고난’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타자’²⁾는, 일상을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혼란스러운 실존적 물음이 뒤얽힌 장(場)으로 그들을 밀어 넣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가족 관계의 깨어짐과 상실의 체험을 통해 존재의 결핍과 불안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과 상실의 체험은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다뤄진 상처의 근원이기도 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가 우리들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나는 인간의 존재에서 ‘관계성’의 차원이 얼마나 근원적으로 자리한 ‘실존범주’³⁾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죽음을 통해 존재자가 부재한 상황은 ‘없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관계의 상실과 그로 인한 실제적인 고통과 불안정이 ‘찾아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존재자의 부재는 관계의 상실이라는 고통과 함께 때로는 생존적인 불안정까지 수반하는 사건이었다. 실제로 어린 자녀들의 생존은 부모의 존재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죽음이나 떠남은 자녀들의 생존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죽음을 통해 가까운 관계를 상실한 이들이 겪는 이러한 ‘빈자리’의 체험은 생존적인 불안정과 함께 실존적인 아픔을 수반한다. 이는 존재자는 부재하나 존재자의 ‘빈자리’는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남아있는 ‘모순의 체험’이기도 하다.

타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살아있는 자는 ‘부재’ 그 자체의 공허를 느끼며, 타인을 향한 그리움과 외로움의 정서를 키워가게 된다. 친밀함을 공유하는 신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라짐은 존재자의 빈자리를 더 깊이 확인하게 되는 상실과 외로움의 체험이 된다. 이는 지향의 대상이었던 존재자가 사라지고 존재자를 향한 지향성만이 방향을 잃고 남게 된 관계 상실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을 통해 자녀가 부모와 이별하는 경우, 이는 죽음을 통한 헤어짐과 관계의 상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상처를 만든다. 그것은 부모를 향한 기다림과 단념, 그리움과 원망의 감정이 이중적으로 교차하는 상처의 성격을 가진다. 이별을 통한 관계의 깨어짐은 타인을 향한 기약 없는 ‘기다림’과 그 기다림을 체념하는 ‘단념’ 속에서 상처를 형성한다. 보고 싶은 타인을 향한 ‘그리움’과 돌아오지 않는 타인을 향한 ‘원망’의 교차, 그것은 ‘홀로 남겨짐’과 ‘머뭇받음’의 정서를 형성하면서 존재에 추운 기억과 상처로 남게 된다. 죽음으로 인한 관계의 상실과는 달리, 이혼과 같은 이별에서 비롯된 관계의 깨어짐은 이중적 고통을 감내하도록 한다. ‘관계의 단절’이라는 고통과 함께 사회의 ‘부정적인 판단의 시선’에 노

2) 레비나스(Levinas)에게 ‘타자’는 고통, 죽음, 미래, 고아와 과부의 얼굴을 한 타인과 같이 주체가 내부에서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 즉 외재성을 본질로 한다(강영안, 2005).

3) 밴 매넨(van Manen, 1990)은 공간성, 시간성, 신체성, 관계성이라는 네 개의 ‘실존 범주’를 통해 생활세계의 기본 구조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실존 범주는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인간의 근원적 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각각의 범주는 독립적으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체험한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은 체험적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실존 범주였다. 또한 불안정한 거주를 통해 체험하는 공간과 신체의 불안정은 부모-자녀 관계의 깨어짐 및 물질적인 결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출되는 위험 속에서, 그들의 고통은 더욱 숨겨진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2) 거주와 불안정

참여자들의 삶에서 '거주(居住)'의 문제는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만큼이나 비중 있는 상처와 고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집'이라는 공간은 내밀한 가족관계가 살아 숨쉬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체험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참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 참여자들 모두가 유년시절에 '거주의 불안정'을 겪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물리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관계의 불안정을 내포하는 체험이기도 하다.

실제로 레비나스(Levinas)의 철학에서 '거주'의 개념은 실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 참여자들에게서 부모와의 관계가 상실되거나 깨어지고 불안정해지는 체험은 생계의 곤란과 가난, 돌봄의 부재와 방치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거주의 불안정'은 존재자가 세계로부터 잠시 피해 쉽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감을 빼앗아가는 체험이다.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안에 기본적인 먹거리와 돌봄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면, 존재자는 집안에서도 불안정을 느끼게 된다. 거주의 불안정을 느낀 존재자는 최소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주고 애를 쓰는 존재 방식을 갖게 된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내면의 방어벽을 더 견고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왔다.

참여자들은 유년시절부터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낯선 타자를 마주하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고투했다. 죽음, 이별, 가난, 고통과 같은 모습으로 참여자들의 삶에 침범한 낯선 타자는 그들의 존재와 삶을 깨뜨리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존재의 깨어짐과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타자로부터 주체의 내면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를 형성해갔던 것이다. 타자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생존적·실존적 몸부림과 애씀, 이를 통해 형성된 거칠고 방어적인 존재의 겉은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신앙 안에서 타인과 맺게 된 '인격적 관계'는 자신의 내면을 열어 존재의 고통을 나누는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내면성을 초월하여 타인을 만나고 타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Ⅲ.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

나는 참여자들과 나누는 대화 체험을 회상하고 기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대화가 상처의 근원을 향해 가는 지향적 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대화를 통해 치유를 체험하게 되는 현상을 '치유적 대화'로서 잠정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치유적 대화'는 내면의 상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불어 주체와 타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성을 실현하는 가운데 체험되는 대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잠정적인' 개념화를 통해 보다 주체적인 관심을 갖고 대화 체험에 접근하면서,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1. 타인과의 관계 형성

참여자들과의 만남에서 관계 맺음은 타인을 향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수심이 가득한 그녀들의 낮빛을 마주하면서, 그녀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고민이 무엇일지 그 내면을 향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들의 얼굴은 타인을 향한 일종의 ‘말 건넨’과도 같았다. 레비나스(Levinas)는 ‘얼굴’을 통해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를 그 자체로 드러낸다고 말한다. 존재자는 얼굴이라는 표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표현하며,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얼굴의 “벌거벗음”과 “자기 표현, 곧 말 건네움은 얼굴이 타자로서 나에게 현상하고 나에게 소통 관계를 터옴을 뜻한다(강영안, 2005: 180).” 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얼굴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혹은 감추려하는 가장 표면적이고 직설적인 언어로 작용하고 있었다.

상처를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는 타인의 존재를 향한 지향적 관심과 관계 맺음을 필요로 하였다. 참여자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는 점차 그들의 얼굴 너머에 있는 존재의 고통에 주목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자신의 오래된 상처와 고통을 수심이 드리워진 얼굴로써 드러내고 호소하고 있었다(강영안, 2005). 레비나스(Levinas)의 말처럼, 타인의 얼굴에 나타난 호소를 통해 주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책임적 존재’로서 타인 앞에 세워진다(강영안, 2005: 185-186).

나의 경우 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얼굴에 대한 관심과 그 호소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구체적인 ‘돌봄의 행위’를 통해 표현되었다.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는 돌봄의 행위를 통한 감성적, 정서적 차원의 교감이 대화 관계의 근원적인 측면을 형성하고 있다. 치유적 대화에서는 언어적 차원의 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차원의 교감이 깊은 대화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돌봄의 관계를 통해 깨어지고 결핍된 실존 범주로 존재하던 ‘관계성’의 차원이 채워짐으로써, 참여자들은 신뢰와 안전한 관계성을 느끼며 자신의 내면을 열어갈 수 있었다.

2. 상처에 대한 자각

막연하고 익명적으로 의식의 심층에 남아있는 유년시절의 체험과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자각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 우리의 존재를 비추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조명이 필요한 일이었다. 후설(Husserl)은 그의 후기 현상학에서 기분이나 정서를 ‘무의식적인 지향성’의 한 형태로 설명한다. 후설은 “사랑, 비굴함, 원한 등의 정서와 그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동기 지워진 행동방식”이 의식의 심층에 “무의식적 지향성”으로서 자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이남인, 2004: 310 재인용). “체험의 밑바닥에서 작동하고 있는 저 어두운 지향성의 심층”, 다시 말해 “근원질료적인 것”(이남인, 2004: 383)에 특정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무의식적 지향성이 놓여있는 것이다. 우리는 후설이 설명하는 ‘근원질료적인 것’을 ‘존재’로서 다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존재의 상처와 막연한 분위기가 서로 무의식적인 지향적 관련을 맺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서와 분위기라는 것은 뚜렷하게 자각할 수는 없지만, 유년시절에 형성된 존재의 상처와 막연한 형

태로 결부되는 경우가 있다. 참여자들은 분위기가 향하고 있는 대상, 즉 존재 깊숙이 자리한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을 사로잡았던 막연한 분위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치유를 체험하게 되었다. 막연한 분위기와 상처의 지향적 연관을 찾게 되었을 때, 존재자는 익명적으로 엄습하던 분위기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존재에 대한 주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는 존재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연한 정서와 분위기가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상처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그 지향적 관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처의 고백과 응답

상처는 왜 고통 받는 이의 내면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표현되려는 것일까? 상처와 고통이 존재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차원을 넘어, 언어와 대화로써 타인에게 표현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손봉호(1995: 78)는 “고통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며, 철저히 사적이면서도 공적이 되려는 충동을 가진 독특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고통은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누군가에게 표현되고자 하는 강력한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고통을 호소하는 단순한 외침을 넘어,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이해받고자 하는 ‘소통의 갈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의 갈망은 나의 고통을 아무와도 나눌 수 없다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넘어 존재자가 타인을 향해 다가서도록 촉구한다.

참여자들은 자기의 내면성을 견고히 하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을 갈망하는 ‘이중적 갈망’ 속에 놓여있었다. 참여자들은 ‘자기 보호’와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내적 갈등과 갈망 속에서, 마음속 깊은 상처를 나누기 위해 자신의 밖으로 나아가 타인에게로 한걸음 다가갔다. 치유적 대화는 신뢰하는 타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처 입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열어 보이는 ‘고백적 언어’를 통해 무르익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존재에 있는 상처와 약함을 타인에게 진정성 있게 열어 보임으로써, 자신의 내면성을 견고히 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비로소 자신과 타인 ‘사이’에 설 수 있었다. 이처럼 존재자가 자기성을 뚫고, 나와 너 사이에 마주 서는 존재의 체험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Buber, 1923). 타인과의 접촉을 갈망하며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이는 대화는 타인을 ‘너’라는 존재와 인격으로서 마주하는 순간이다. 타인을 향한 존재의 열어 보임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에 들어서는 순간이며, 사회적 형식을 벗고 ‘나와 너’의 질적인 만남이 무르익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상처를 고백하는 대화의 순간에, 참여자들의 존재에 ‘응답하는 이’로서 마주하고 있었다. 타인의 고백을 향한 나의 응답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언어적 측면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두 눈의 마주침과 진지한 표정, 기다림의 침묵, 경청과 공감을 표현하는 끄덕임, 함께 아픔을 느끼는 눈물과 안아줌의 몸짓 등으로 표현되는 비언어적 측면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대화라는 구분이나 경계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마주 대하고 있는 ‘나의 존재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상처 입은 ‘너’에게 응답하는 ‘나’는 타인에게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비대칭적인 구도 속에서,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온 존재를 기울여 응답하고자 하였다(Levinas, 1947b). 상처를 고백하는 이는 또 다시 상처 입을 가능성을 안고서도 자신의 밖으로 나아가 타인 앞에서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

다. 상처를 고백하는 치유적 대화의 순간에는 상호적이고 대등한 나와 너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관계로 전환되면서, 관계의 무게중심이 주체에서 타자에게로 옮겨지고 있었다. 이처럼 타인의 고백이 깊은 상처의 근원을 향해 있을 때, ‘고백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에서 비대칭적인 구도로 전환되는 것을 체험하였다.

4. 삶에 대한 이해와 존재의 회복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 혼란과 고통을 느낀다. 하이데거(Heidegger, 1927)는 존재자가 존재물음을 던지며 자신의 존재함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을 현존재의 실존으로 본다. 현존재의 실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타인을 포함한 타자는 가족의 죽음이나 헤어짐, 질병이나 물질적 고난과 같이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타자로 다가와 존재자의 존재와 삶에 상처를 입힌다.

존재자의 일상성을 깨뜨리는 타자의 엄습은 의미의 깨어짐과 혼란 속에서 존재의 모순을 일으킨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처의 고통 속에서, 존재자는 부정의 긴장과 상처로 아파하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기도 한다. 헤겔(Hegel)은 모순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을 재생산하는 것은 자기 안의 모순을 견뎌내며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생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김준수, 2012). 존재자는 존재의 모순을 떠안고 실존하면서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모순적인 삶의 조각들을 총체적인 의미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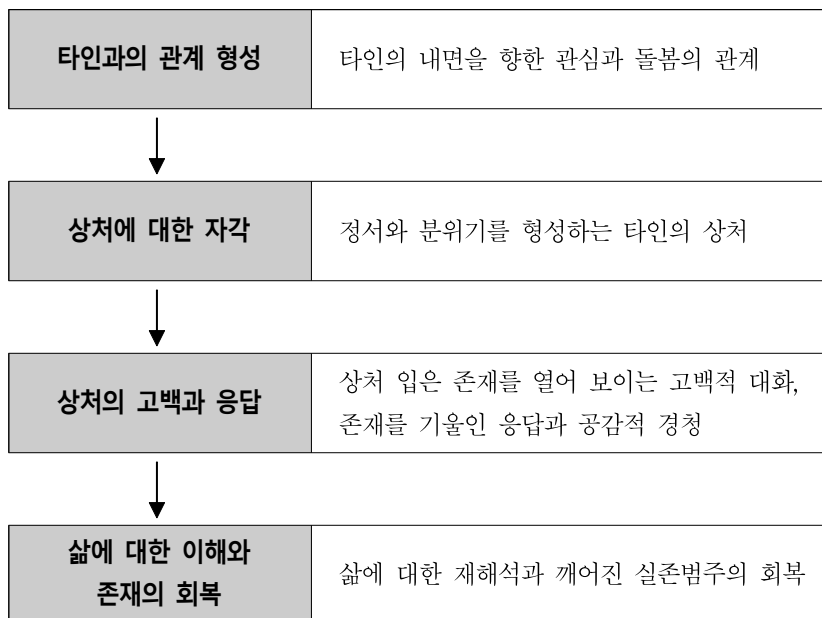
참여자들과 깊은 대화를 마친 후, 나는 참여자들에게 공통된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상처를 고백하며 지난 삶을 구술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의미 있는 전체로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이라는 타자의 의미를 깨달아가며, 막연하게 밀려오던 상처의 아픔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생애에 대한 구술을 통해 존재자는 타자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존재와 삶의 모순을 견뎌낼 수 있는 해석적 힘을 갖게 되면서 다시금 생의 의지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는 깨어지고 결핍된 실존 범주에 안정적인 ‘의미의 기반’을 놓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는 타인의 내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을 시작으로, 상처의 발생적 근원을 함께 찾아가는 대화의 과정이었다. 내면의 상처를 열어 보이는 이에게 나의 존재를 기울여 응답하는 대화를 통해, 상처를 고백하는 이는 존재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내면의 상처와 고통을 향한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은 상처를 고백하는 이가 자신의 삶을 고유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재발견하도록 도왔다. 이는 타인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는 해석적 내러티브의 과정이기도 했다. 나는 논문에서 위와 같은 과정과 성격을 가진 대화 체험을 ‘치유적 대화’로 개념화해 보

았다. 주체와 타자의 만남에서 관계의 깊이를 체험하고 고유한 인격성을 실현하는 대화의 과정은 기독교 신앙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체험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

나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치유적 대화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향해가는 지향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깊은 차원의 관계 맺음과 긴 호흡의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변화의 과정이었다. 대화를 통해 주체와 타자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진정성 있게 서로의 존재를 열어 보인다. 그리고 주체는 대화를 통해 깨어진 실존 범주를 이해하며, 자신과 타자, 존재와 삶에 대한 고유한 이해로 나아가게 된다. 인격적 관계에 바탕을 둔 대화를 기반으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재정립해가는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우리 시대의 요청에 작은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공병혜 (2017).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선희 (2015). 『철학상담: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대화』. 경기: 아카넷.
- 김준수 (2012). “헤겔 철학에서 모순과 변증법.” 『코기토』. 71. 305-34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노승수 (2018). 『핵심감정 탐구: 핵심감정의 치유와 성화의 길』. 서울: 세움북스.
- 박병준 (2017). “현상학과 철학상담: 행복 수업을 위한 철학상담의 방법론 모색.” 『철학논집』. 50(Aug). 9-41.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 손봉호 (1995). 『고통받는 인간: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경기: 한길사.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 (2011). 『질적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서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 Buber, M. (1923). *Ich und Du*. 표재명 역 (1977).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 Buber, M. (1943/1982). *Das Problem Des Menschen*. Verlag Lambert Schneider·Heidelberg. 윤석빈 역 (2007). 『인간의 문제』. 서울: 길.
- Edwards, S. D. (2001). *Philosophy of Nursing: An Introduction*. 공병혜·홍은영 역 (2004). 『돌봄과 치유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Fromm, E. (1976/1978). *To Have or to Be?*. NY: Harper & Row Publishers. 최혁순 역 (1988). 『소유냐 존재냐』. 서울: 범우사.
- Heidegger, M. (1927/1979). *Sein und Zeit*. 이기상 역 (1998).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 Husserl, E. (1911).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이종훈 역 (2008).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 서울: 지만지.
- Jung, C. G. (1920). *Collected Papers on Analytical Psychology*. 김성환 역 (2016).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경기: 연암서가.
- Levinas, E. (1947a/1963). *De l'existence à l'existant*. 서동욱 역 (2003).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 Levinas, E. (1947b/1979). *Le temps et l'autre*. Fata Morgana. 강영안 역 (1996).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 Scheler, M. (1923).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조정옥 역 (2006).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서울: 아카넷.
- Strasser, S. (1985). *The Idea of Dialogal Phenomenology*. Duquesne University. 김성동 역 (2002). 『현상학적 대화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Canada: Univ. of Western Ontario. 신경림·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동녘.